

만남

2019년 6월
통권 173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봉헌생활 혹은 영성생활-----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평화가 너희와 함께-----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하느님을 위해 일하도록-----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6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사제들의 삶의 방식

사제들이 검소하고 겸손한 삶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는 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봉헌생활 혹은 영성생활

현대 봉헌생활 혹은 영성생활에 참으로 필요한 덕목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균형감각’, ‘자기통제 능력’이 아닐까요? 영적생활과 사목활동 사이의 균형, 기도와 일 사이의 조화, 관계, 일 앞에서의 적절한 자기 관리. 왜냐하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밀려오는 최첨단 유혹거리들, 하루하루 그 모습을 달리하며 다가오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 앞에 거의 무방비상태입니다.

맡겨지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 온종일 죽기 살기로 일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를 넘어 120% 완벽을 기합니다. 자신에게도 철저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자신을 실현시키는 도구는 오직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조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올린 끝도 없는 자기만족, 자기실현, 번쩍이는 업적, 명예의 탑, 그 이후에 도대체 뭘 할 것입니까?

즉시 따라오는 것은 또 다른 갈증이며, 또 다른 허기입니다. 지독한 공허함이며 허탈함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 하느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자기만족을 추구했을 뿐이니 결국 자기 개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수도자 양성의 전문가이신 글라렛 선교수도회 인만희 신부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본질, 즉 ‘그리스도의 곁에 있기 위한 부르심’을 모르고 일에 종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도 모르고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서원 후 수도원이나 교구에서 맡은 일에 투신합니다. 많은 일과 새로운 미션에 도전합니다. 인기 있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기쁨에 빠져 현실을 모르고 착각 속에 살다보면 어느 순간에 무의미한 삶을 깨닫게 됩니다. 수도자나 사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분 곁에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영성생활 제41호 참조)

봉헌생활이란 결국 하느님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생활입니다. 영성생활이란 우리의 근원적 결핍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본질이자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있는 생활, 우리의 원천인 하느님 안에 깊이깊이 뿌리내리는 생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2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3장 “살아계신 주 성령”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 ❖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안에 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0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평소에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까?
- ❖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자 사도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 지방말로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교만으로 인해 서로 분열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여 하나로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치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평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를 빌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성령은 온유하신 당신의 영, 마음입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에제 36,26)고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살로 된 마음, 새 영’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기에 온유하고 관대하며 다른 이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영에 힘입어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평화와 용서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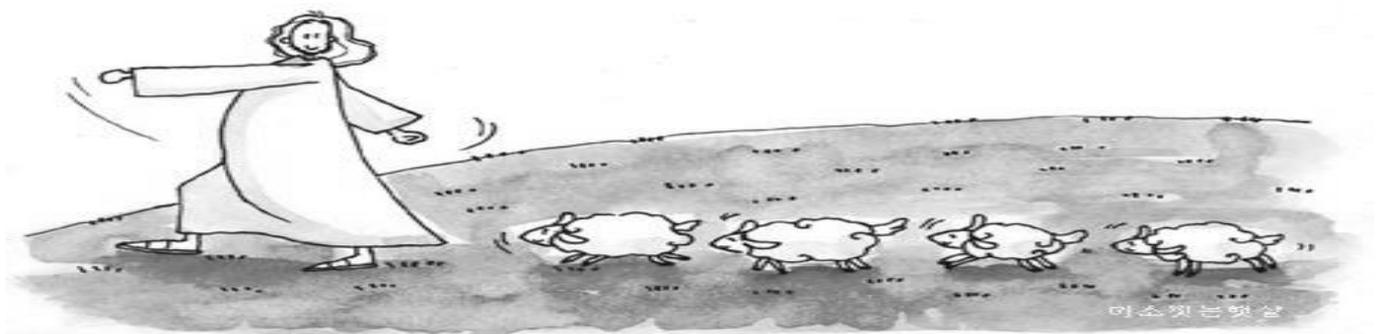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3장 “살아계신 주 성령” 2절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계시 헌장, 2항)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허기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은 무엇보다 성경으로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요한 1,14)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자리를 비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과 한 몸이 되고, 어떠한 유혹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방법과 자세를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는 말씀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려는 것으로, 그 “첫 단계는 친밀함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열기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참다운 영적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청은 우리를 단순한 방관자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바른 몸짓과 바른 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한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경청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성숙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향한 열망을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171항)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는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와 소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복음화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 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합니다.”(주님의 말씀, 174항)

16. 차별 없는 사랑의 계명

교회는 하느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주님(그리스도, 메시아)이라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야고 2,26)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고 밝히셨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뜻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측량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하느님께서 그 무게를 헤아리실 테니 말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계약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그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를 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매개로 ‘하느님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마태 25,31-46 참조)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마디로 작은이들을 업신여기지 않고(마태 18,10), 차별하지 않으며(야고 2,8-9 참조),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창립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없고 약한 처지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절에도 대부분의 유다 민중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중의 폭력 앞에 대책 없이 신음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억눌렀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로마제국에 부역하고 집단의 안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폭력은 언제나 비겁하게 힘없는 사람과 집단을 향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면, 적어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불이익을 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힘없다고 하찮게 여기고, 나와 다르다고 불이익을 태연하게 가하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누구인가 돌아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사람, 더 소외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를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17. 연대의 결실인 평화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이며 정치적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384항). 그런데 만일 사회(공동체)와 정치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분업화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경제영역에서 인용되는 특징이지만, 이를 사회에 적용해봅시다. 어쩌면 공동체의 철저한 해체, 사회의 해체현상 앞에서 우리는 고립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공동체, 상생, 공생, 동반, 배려, 관심, 이해와 같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여 부끄러운 고립화를 인정하기 싫거나 혹은 감추기 위한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치는 어떤가요. 교회는 “정치생활의 토대와 목적은 인간이다.”(384항)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공동체(국가)는 근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현대에서 공동선 실현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으로써 드러난다(388항)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면, 그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정치는 과연 정치일까요? 단 하루 단 한 번의 투표행위로 나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역설적으로 정치의 실종이 아닐까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 체제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 피지배자들에게는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 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된 지배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면 안 된다.”(406항)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빼앗긴 가장 약한 이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창립자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교회헌장」, 8항). 그리고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수많은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이나 피상적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니라 도덕적 덕목입니다.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입니다. “연대성은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에 투신하고 복음의 뜻 그대로 남을 위하여 ‘자기를 잃을’ 각오로 임하는 것”이기에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적 덕목입니다(193항). 그리고 연대의 결실은 평화입니다(102항).

18. 오순절과 다문화

교회는 파스카 신비의 완성인 오순절에 태어납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불꽃 모양의 혀”(사도 2,3) 모양으로 사도들 위에 내렸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사도들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강림은 바벨탑의 죄로 인해 말이 뒤섞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던 상태에 놓였던 사람들을 사도들의 말을 자신들의 말로 알아듣게 만들었습니다. 성령강림은 온갖 지방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소통의 부재를 소통의 상태로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으로 인해 사람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알아들었고 그날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삼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전 세계에서 모여 온 사람들이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는 첫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떤 특정 민족 안에서 태어나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지방에서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성령강림으로 인해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가 창립된 오순절의 사건은 민족들 간의 어떤 차별이나 배제가 없는 일치와 소통, 그리고 회개와 구원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사건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류에게 여러 언어로 다가가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회는 그 출발에서부터 다양한 지방 출신의 다양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로 구성된 하느님의 백성이기에 교회 안에서는 다문화의 요소를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왜 교회가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교의 사명과 인류 일치의 사명을 부여 받았으며, 오순절에 일치의 성령에 의해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였고 사도시대부터 이민족들을 신앙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민족, 이방인을 기꺼운 마음으로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신원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도록(수산나 웨슬리)

복되신 주님!

제 마음에 큰 자유를 허락하시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소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나 즐겁게 하소서.

일상의 재미에 너무 빠져
세계 주신 달란트를 계발하는데
무관심하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소서.

열심히 살게 하시되 시기심으로 하지 않도록,
부지런하되 걱정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소서.

지극히 사소한 일을 대할 때
그것에 인생의 성패가 달리듯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모든 좋은 일에 대해 주님께 찬미를 드리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물려서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철저한 신중함을, 순백의 정결함을,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를,
거침없는 자유를, 주 예수님께 대한 굳고 견고한 믿음을!

그리하면 일상의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행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으니
주님! 저를 이끄시어
세상에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질문

늘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곤 했는데, 저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없네요. 여자친구도 저를 떠났습니다. 아무리 만나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다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과는 어울리기 싫고, 그렇다고 혼자 외롭게 살자니 힘이 드네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형제님 사연을 보면서 저절로 혀가 차는 소리가 납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상담해줘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요. 형제님은 마태오 성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5장 27-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마태오)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마태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외톨이에 외로움에 찌들어 살았을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마치 반전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루카 6,29).

세리가 외로움에 찌든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태오가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마태오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형제님은 마태오 성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외로움이란 감정은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나방처럼 일시적 해소를 위한 위험한 처방들을 남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외로움에 깔려 자신의 인생을 일찍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왜 생기며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영성심리에서는 외로움은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아닌 ‘결핍의 문제’라고

합니다. 항상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던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외로움의 근원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살자고 결혼하거나 친구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그런다고 바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기대고 한 사람은 받아줘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외롭기에 늘 기대할 자리가 돼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급기야는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란 적당히 기대고, 적당히 기대할 자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적당량의 외로움은 홀로 견디면서 또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바람막이가 돼줘서 심리적 추위를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리인 마태오는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주위 사람들 눈총을 받으며 외롭게 살면서 그 외로움에 치여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 바람막이로 삼고 살았던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로움이란 모자관계에서 이뤄지는 원초적 감정의 세계입니다. 모자간에 충분하고 풍요로운 감정의 교류가 이뤄질 때 사람은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성적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사무치는 그리움과 애정결핍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자신에게 작은 애정이라도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을 보입니다.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해 외로움이 더 커질까 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지요. 소위 ‘애정결핍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리 마태오를 본받아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마태오 성인처럼 소속감을 느껴야 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보고 싶은 존재가 된다면 웬만한 외로움은 달래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닙니다. 외로움에 젖어 있는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외롭게 내버려둔 세상을 원망하는 삶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대개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하는 속 좁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역시 외로움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살레시안 칼럼에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교회의 초석을 놓으신 바오로 사도, 그분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밝힌 것처럼 회심 이전 그는 바리사이 중의 바리사이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에서나 실천에서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 안에서 그는 전도유망한 인정받던 젊은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통 유다 신앙에 대한 열정과 사랑 에너지로 가득 찼던 사울이었기에 유다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는데 최 일선에 있었습니다. 후에 밝힌 바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있어 가장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박해자였는지 다마스쿠스에서 낙마 체험 때 이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9,4)

다행히 다마스쿠스 낙마 체험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사흘간의 바닥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난 그는 이름마저 사울에서 바오로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상하는 것,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새사람이 된 바오로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선포의 최 일선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곳 저 곳 전도 여행을 거듭하면서 초기 교회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그곳 신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한 사목서한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쓴 그의 사목 서한들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목서한들을 통해 후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윤리론, 신론 등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신학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때로 한없이 심오하지만, 때로 한없이 단순합니다. 때로 깊은 사유와 성찰을 하도록 초대하지만, 때로 자신이 겪은 생생한 체험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듯이 편안하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때로 한없이 감미로운 톤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때로 비수처럼 날카롭고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때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유언

과도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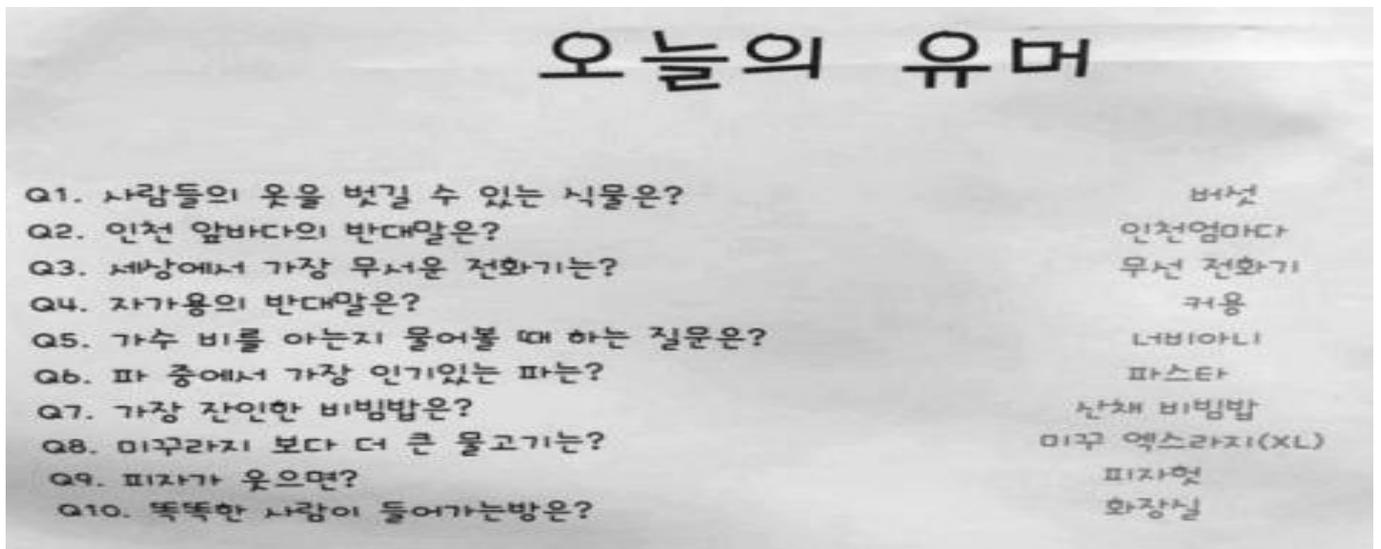
특히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사목서한은 바오로 사도의 영적 아버지로 서의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1코린 3,16)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새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코린토 신자들, 이제는 말끔해지고 깨끗해진 그들이었건만, 또 다시 자신들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는 코린토 신자들을 향한 바오로 사도의 질책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동시에 바오로 사도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코린토 신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1코린 3,17) 이로써 그는 종래 전통적인 성전 개념을 대폭 확장시킵니다.

바꿔 말하면 위풍당당한 대성당도 성전이지만, 우리 각자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거처하시니 우리 각자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인간의 품위를 한껏 격상시키셨습니다. 이 부끄럽고 비참한 인간 존재가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이라니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지덕지하게도 인간 각자가 거룩한 성당이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이니 더 이상 함부로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성전을 보다 성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장식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보다 자주 성전 정화 작업을 반복해야겠습니다. 보다 자주 고해소로 들어가고, 보다 자주 비워내야겠습니다.



❖ 6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유스티나	홍영숙	29일	베드로	김부남
13일	안토니오	김현규			이영원
19일	율리안나	김효정			최윤석
24일	세레자 요한	김성철 김민규 남궁경 박진태 최현봉 박찬진			김상미
				파울라	최영자
				바로로	송문규 이민재 배재현 진태근 박종래 박준병 최승진

❖ 6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3일	안토니오	문철주(H) 박일열(H)	29일	바로로	최한우(O)
19일	율리안나	송윤아(H)			임완규(O)
24일	카타리나	고희경(B)			이범이(H)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6월 성가번호 ❖

6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2일	137	340	499	141
9일	147	342	493	142
16일	81	332	153	83
23일	찬 양 미 사			
30일	55	56	160	201

❖ 6월 미사 전례 봉사자 ❖

6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3구역
9일	1독서(오스나브뤼크) 2독서(하노버) 보편지향기도(브레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전 신자
16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4구역
2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주일학교	청년회
30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김진호(프란치스코)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요셉 마리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4월 28일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주일헌금	195.06	210.04	234.54	191.15
헌납금	40	210		150
구작입금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380.00 * 헌납금 합계 780.00			

❖ 자진헌납금 ❖

2019년 4월 23일 - 2019년 5월 20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강신행, 이종하, 배성우, 김기연, 오옥수, 심동근, 이현목,
 최순남, 손수희, 문수진 Sebastian, 육종인, 현영애, 이정은,
 신옥희, 김경미, 김건, 윤석순, 우동천, 김효정, 김민옥,
 이정수, 황영선, 최장용, 서세원, 이수웅, 진윤희, 이공종,
 강순행, 방은일, 김경열,

◆ 구작입금 :

김정숙 Eilinghoff, 최성자, 이성원, 박준병, 허두욱, 정정숙,
 이정훈, 김치수, 김진호, 김동수, 김유석, 김대현, 강일남,
 김형웅, 이명원, 이상봉, 백정선,, 송문규, 허길조, 홍경영,
 이경규, 이영원, 이석우, 최화영, 최현봉, 남궁춘배,
 영희 Eggerstedt, 권지연 Rabe,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6월 9일 일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본당의 날 행사가 함머공원에서 있습니다. 11시 30분에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미니올림픽과 성경퀴즈대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점심식사는 성당에서 준비합니다. 낱개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6월 10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 금요일까지 런던 한인천주교회에서 유럽 사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6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카르디날 술테 하우스에서 유럽 레지오 단원 교육이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이 기간 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6월 4일 화요일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 6월 12일 수요일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6월 14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6월 16일 일요일에는 청년 소공동체, 6월 27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 6월 28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6월 20일 목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주교좌성당에서 19시에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 거동 행렬이 있겠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6. 6월 23일 주일미사는 찬양미사로 봉헌되고, 6월 24일은 월요일이지만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이므로 19시에 만남성당에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울러 6월 28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며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6월 29일 토요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므로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5월 미사는 5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Hedwig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3. 6월 미사는 6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4. 5월 달 미사 후에 총무님의 생신잔치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아울러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버이날 축가를 불러주고 가슴에 꽃도 달아주어 기쁘고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5월 공동체 미사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하였습니다.
4. 6월 공동체 미사는 6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합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5월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5월 11일(토)에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이재홍(요셉) 안수경(프란체스카) 가정의 자녀 이태호(야고보)가 5월 19일(일) St. Ansgar 성당에서 첫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안지환(베드로) 이해령(마리스텔라)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4. 6월 미사는 6월 8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올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민음의 샘 C.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3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부회장	강새벽(에스텔)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6월(예수 성심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브레멘 공동체
2	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예비신자 교리, 사목회	
3	월	성 가를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4	화	부활 제7주간 화요일	민음의 샘 꾸리아	
5	수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환경의 날		
6	목	현충일, 망종		
7	금	단오		
8	토			오스나브뤼크
9	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본당의 날(함머 공원)	
10	월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유럽 사목자 모임, 런던 한인천주교회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11	화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12	수	연중 제10주간 수요일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3	목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14	금		2구역 소공동체	
15	토			하노버 공동체
16	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년회 소공동체	
17	월			유럽 레지오 단원 교육 카르디날 솔테 하우스
18	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19	수			
20	목		성체 현시 및 행렬, 주교좌성당 19시	Fronleichnam
21	금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4구역 소공동체	
22	토	하지		
23	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찬양미사	
24	월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19시 대축일 미사	
25	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6	수			
27	목		연령회 월례회	
28	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10시 대축일 미사
29	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
30	일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
 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